진행자 멘트)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해결사 000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진행될텐데요. 오늘은 평소와 다릅니다. 왜냐, 이번 주는 바로 <철학을 통한 상담> 특집! 이제 오늘의 특집에 걸맞게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평소 저희의 의 애청자라고 하시는 단국대학교 철학과 학생 000, 상담학과 학생 000 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철학과 학생) 안녕하세요, 라디오스타 매일 청취만 하다가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 좀 떨리는 것 같네요. 철학과 000 입니다.

상담학과 학생) 저도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긴장되네요. 저는 상담학과 000입니다.

진행자 멘트) 오늘의 사연은 아이디, Old\_Prince1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밤중에 두고 온 게 생각나서 가게로 갔는데, 아니 문은 분명히 닫혀있는데 문에 달아둔 종소리가 들리지 뭐에요? 이제 뭔 일이 났다 싶어서 달려가니, 쪼그마한 애 한명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가게에서 파는 항아리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초간 있다 제가 먼저 항아리 내려놓고 말로 풀자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애가 얼마나 당돌한지, 미안한 낌새도 없이 알겠다면서 내려놓는데, 아니 이게 내려두자마자 깨지지 뭡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이거.

일단 왜 왔냐 물어보니, 훔치러 왔다면서 자길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수백 만원 짜리를 훔치다 깨먹고 그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화가 끝까지 치밀죠 이거. 그런데 지 몸뚱아리 만한 항아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동정심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경찰은 안 부를 테니, 나랑 여기서 일하자고. 일해서 갚으라고. 그러니 애도 좀 누그러져서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꼬마랑 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몇주간 같이 있으면서 일 하는 걸 보니 도둑질 하려던 놈 맞나 싶을 정도로 싹싹하게 잘 하고 속도 착한 놈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서로 좀 친해져서 최근에 옛날 얘기 좀 들어봤는데, 아 정말 같은 어린애가 버틸 수 있는 삶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듣자하니, 애 아빠라는 놈은 술에 찌들어서 가족을 때렸다 합니다. 그러다가 한 날에는 아빠가 애 엄마한테 몽둥이를 들고 휘둘렀다는데, 어떤 자식이 자기 어미 맞는 걸 보고 있겠어요. 아이가 달려가서 아빠를 밀쳤는데, 하필 밀친 곳이 창문이라 아빠가 떨어져 죽었다 합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은 전후사정은 듣지도 않고 애는 지 아빠를 죽인 패륜아를 만든 겁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도 남은 가족 살리겠다고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말문이 막히죠. 이렇게 힘들게 산 애한테 제가 뭘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이번에 여기서 상담특집을 한다고 들어서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Old\_Prince123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아 이거 제가 읽는 동안에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아이디가 늙은 왕자인데, 보고 있으니 나이 들어서 어린 왕자를 다시 읽는 느낌도 나네요. 확실히 네, 저도 라디오 DJ 오래 했지만 뭐라 말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초대하신 분들께서 나설 차례라고 생각됩니다.

상담)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 소년은 굉장히 큰 심리적 외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그런 심리적인 외상을 입고 나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 안전기지가 있는지의 여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늙은 왕자님이 그런 안전 기지의 역할을 해주면서 소년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년은 지금 가족에서 본래의 역할 이상의 것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소년과의 관계가 조금 더 단단해지면 소년이 지금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가족, 사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파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소년이 느끼고 있을 고통과 분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가족 간 의사소통,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것들을 교육해서 억압적인 상황을 인지시키고 서로에 대해 지지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네요.

철학) 저는 실존철학에 관심이 있는데 소년은 자신의 실존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에게 실존은 본질에 앞서긴 하지만 그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모두 세계에 내던져져서 유기되어 있는 현실 존재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이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결단에 의해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존재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년은 지금 자신의 본질 존재에 대한 의문과 실존적 불안을 외면하기 급급해 보여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소년의 불안이 줄지는 않을 거에요. 실존적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도 결국은 불안에 속해서 죽음을 향하는 자신을 지각하는 것이니까요. 인간은 불안에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에요.

상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빈 얄롬이라는 실존치료사도 고독, 무의미함, 유한성, 자유라는 4가지 실존적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실존적 조건들을 회피하면 타인에 인정, 가치에 기반을 두는 피상적인 삶을 살고 실존적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봤거든요. 지금 소년도 아버지의 죽음과 죄책감으로 인한 실존적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4분

진행자)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가 오간 것 같네요. 그러면 두 분은 만약 늙은 왕자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소년을 도와줬을 것 같나요?

철학)음…저라면 철학적인 논박을 주고 받았을 것 같아요.

상담)아 마치 REBT치료처럼 말인가요?

철학) 아 네 저도 들어보긴 했는데rebt치료가 무엇의 약자인가요?

상담) rebt치료는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인데 인간의 정신적 고통은 고통스러운 사건 자체보다 그로 인해 형성된 비합리적인 신념, 철학에 의해 발생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철학)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년도 여러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여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나는 평생 살인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소크라테스식 논박이 소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담)그런데 저는 소년이 그런 논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지 조금 의문이네요. 그런 인지적인 작업보다는 먼저 소년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외부와의 건강한 대인 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소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용받은 경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수용받지 못한 자아는 자기방어에 몰두할 수 밖에 없고 계속해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지금 소년은 사회적인 낙인과 죄책감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행동을 하는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건 결국 낙인과 죄책감을 더 커지게 해서 자기패배적인 순환을 하게 될 거에요. 소년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은 이런 자기패배적 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소년에 대한 늙은 왕자님의 일관적인 대리 수용으로 소년도 자신의 자아를 조금씩 수용하면서 조건화된 가치를 위해 허비하던 에너지를 자기를 탐색하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행자) 이전의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두 분이서 의견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학) 지금 소년은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회피하고 비본래적으로 실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유 존재를 잊는다 해도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현존재는 현존재의 존재에 처해 있음이라는 실존적 자기 구조를 통해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으니까요. 인간은 이런 비본래적 실존을 먼저 경험하면서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불안에 대해 인정하고 직면해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상담)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실존적 불안의 직면에서 조금 걱정이 들어요. 아마 소년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겪을 거예요. 소년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정상화, 타당화로 소년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특히 소년은 극단적인 경험을 한 만큼 병렬 현상이 더욱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부모와의 관계에서 필요했고 바랬던 수용의 경험이 현재와 현저하게 비교될 때 비참한 정서적 기억이 몰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상담적인 관계가 실존적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내담자가 겪을 고통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지나치게 인지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면 결과조차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존 철학을 이용한 대화에서도 상담의 인간중심적인 기본 요소들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소년으로 하여금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진실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데 더 효과적일 거예요.

진행자) 두 분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서로 엮이기 힘든 것 같은 상담과 철학이 융합된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제 요약하자면, 소년과 실존 철학에 기반을 두고 대화를 나눌 때 소년이 느낄 두려움과 불안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실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면 분명 소년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늙은 왕자님께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잠시 노래 한곡 듣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의 ~~~